

안전 · 보건에서 고품질 화장품 생산

62년 서울 군자동에서 시작한 한국화장품은 28년간의 부천종합공장 시대를 끝내고 2006년 충북 음성에 새로운 보금 자리를 틀면서 이곳의 안전 · 보건 활동은 빛을 발하고 있다. 중견기업이나 안전보건에 있어서는 창의력 있는 활동으로 그 어떤 기업에도 뒤지 않으면서 지난 3월 한국경제신문에서 시상하는 안전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0년에 산재예방 노동부장관 표창과 2003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최한 “건강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이미 이들의 활동은 정평이 나왔다.

머리말

음성공장은 대지 16,000여평, 연건평 4,500여평의 대단위 화장품 종합공장으로 본관동, 생산동, 물류동과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본관동에는 기술개발연구소를 비롯하여 관리팀과 OA팀 등이 있고 생산동에는 제조실, 충전실, 포장실, 원 · 부자재 보관실 등 직접생산에 필요한 공간으로 400여 품목을 월간 200만개(본품 기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

오늘 대한산업안전협회 박용순 대리와 함께 현장 점검에 동행해 본다.

탈춤을 직원 건강지킴이로 승화

음성공장 입구에는 30년이 넘는 석탑이 한국화장품의 오랜 역사를 안고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

온다. 그 주위에는 봄을 맞이하여 한창 만개하고 있는 각종 꽃들과 푸르른 자태를 드러내는 나무, 그리고 그 사이에 천연잔디구장을 휘어 감고 있는 산책길이 보인다.

직원들이 운동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1999년 부천공장에서부터 국가무형문화재 49호 송파산대놀이 중 마당극과 탈춤 전수자인 안전보건담당자 어원석 과장이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차원에서 탈춤을 유통예방체조로 국내 최초로 개발 · 도입하면서 산재보험료의 5,000만 원을 절감시켰고, 개인 의료비 또한 획격하게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결과에는 유통예방탈춤 하나만으로 얻어진 것은 아니다.

출근하는 모든 직원들이 입구에 조성되진 1키



로 산책길을 통과해서야 일과를 시작할 수 있고, 간부들은 점심시간대, 야근자들은 야간에 산책길을 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의지가 담겨진 위험성평가

연구소에서 개발된 새로운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30여가지의 원재료를 제조가마에 믹싱하고, 숙성하여, 최종 출하하는 CGMP 우수화장품 제조공정에는 충전지역, 준비지역, 포장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미세 분말가루에 의한 호흡기 질환 위험을 비롯해 소음 등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인자들이 있다.

포장존에서는 케핑기, 충전기에서 협착사고 위험을 비롯해 출하과정에서의 지게차 위험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화장품의 공정 특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요소는 위험성평가를 통한 철저한 관리에 의해 무재해 한국화장품을 이어가면서 금년 3월 한국경제신문에서 시상하는 안전경영대상을 수상하였다.

위험성평가는 자체 TFT팀을 구성하여 사소한 위험요소에서 심각한 위험사항에 이르기 까지 발굴한 것이 책 한권 정도이다.

그 만큼 많은 위험요소를 찾았다는 것은 개선하려는 한국화장품의 의지가 담겨있음을 엿볼 수 있다.

위험성 평가에서 발굴된 위험요소는 단기, 중·장기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한국화장품의 또 다른 안전지킴이

음성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한지 1년이 조금 넘었다. 처음부터 한국화장품은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안전에 있어 공조체제를 갖추고 무재해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보건을 전공하고 보건담당자로 있는 어원석 과장을 도와 한국화장품의 안전지킴이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박용순 대리가 현장을 누빈다.

늘 새로운 것을 찾고, 발굴하려는 한국화장품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 배우게 된다는 박용순 대리는 한국화장품의 또 다른 안전지킴이이다.

한국화장품의 슬로건은 “품질에서 앞서 간다”이다. 여기서의 품질은 설비의 안전과 근로자의 안전에서 시작된다.

휴먼에러를 줄이기 위해 오늘도 2,16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화장품에서는 기공체조, 금연침 시술, 자동혈압기 비치, 안전보건 3행시 짓기 대회 등 근로자의 건강과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서며 국제적인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종덕 기자〉

■ 단시간의 스트레칭으로는 요통 예방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현장에서 흔히들 이용하고 있는 스트레칭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현장에서 요통 예방에 큰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스트레칭을 하면 모르나 5분에서 10분의 소요시간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힘의 원천인 파워하우스(배와 허리) 부분을 강화시켜 요통을 강화시키고, 사람의 신체 좌우의 균형을 맞춰주는 탈춤은 단시간에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탈춤요통예방체조를 개발한데에는 탈춤이사이고 인간문화제인 한국산업안전교육원 함완식 교수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탈춤요통예방체조가 개발된지 8년이 넘는 지금 주의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사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번 수상한 안전경영대상에서도 저희만의 탈춤요통예방체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고, 벤치마킹 대상도 되었던 것이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 탈춤요통체조에 관심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영양제처럼 좋은 약보다는 구수한 밥을 꾸준히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좋은 것처럼 탈춤요통체조도 끝까지 놓지 말아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어원석 총괄과장